

# 남자 바꾸기에서 체제 바꾸기까지

##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현재와 전망, 그 '시학'과 '정치학'의 갈등

최현희

또하나의 문화 동인

최근 서점가에는 페미니즘 소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작가들이 쓴 작품뿐 아니라 번역작품까지 합쳐서 일시에 붐을 이루는 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금지된 문을 열었다”라는 광고문안으로 접근한 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성독자를 위해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써어졌다른 윤명혜의 「여자가 여자에게」나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여성문제 소설선」 등 여성문제와 관련된 책을 출판해 내는 분위기에서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의 열풍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그만큼 여성 자신의 체험과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며 페미니즘이 사회적인 관심 사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페미니즘’이 잘 팔리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이용되는 세태 속에서 상업주의가 가져올 페미니즘의 왜곡 또한 우려된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작품을 선전하는 일련의 광고문안들은 강력하다 못해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남자를 꿈꾸는 여자」라는 식의 책 제목이나 “지금 남자를 버려라. 인색하고 고루하기 짜이 없는 남자에게 보내는 여자의 충격선언 : 남성우월의 사회구조에 반기를 든 어느 지적 캐리어우먼의 외침이 안일한 태도의 남자와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고 믿는 여자와 관념적 사랑이라는 허위에 새벽찬물을 끼얹는다”는 식의 책광고들이 그러하다.

이렇듯 여성해방과 관련된 책의 제목이 남녀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나 외도를 암시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페미니즘의 실체는 무엇인가? 위의 광고문구대로 남자 바꾸기가 그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이경자의 「혼자 눈뜨는 아침」, 조문경의 「시를 짓듯 죄를 짓다」를 통해 여자의 외도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리고 나서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공지영의 「무소의 뽀처럼 혼자서 가라」를 통해 페미니즘 문학의 연륜과 지평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비교해볼 만한 이경자와 조문경의 소설

많은 페미니즘 작품 속에서 가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주부의 자아찾기라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외도’나 ‘간음’이란 표현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꿈꾸는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이다. 박완서의 「넓은 방들」에서부터 이런 주제가 간간히 등장하였는데 그때 ‘간음’은 꿈속에서 레드 베틀러와 춤을 춘다거나 이웃집 남자를 상상하는 정도였다. 최근에 나온 이경자와 조문경의 소설은 이 모티브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연전에 「절반의 실패」란 작품집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고, 텔레비전이 이를 방영함으로써 여성문제를 대중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는 이경자는 오랜만에 작품집 「혼자 눈뜨는 아침」을 내놓았다. 이 작품은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서 살던 ‘현모양처형 가정주부’가 축축가인 손아래 유부남과 운명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흔히 통속적이라고 매도되기 십상인 중년여성의 사랑을 작가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 같다. 특히 여성의 성적인 면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여성해방적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아’를 발견하고 한 인간으로 겪게 되는 과정을 ‘사랑’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는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남편이라는 한 남자로 인해서 잃은 것을 다른 남자를 통해 얻으려 했을 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보다 나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어떠한 힘이나 보다 열린 ‘사랑’으로 향해가는 장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성적 주체성이 실질적으로 자아찾기와 연결되는 고리가 없으며 오직 뒤늦은 ‘사랑’의 감정과 환희만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판 ‘로맨스 그레이’가 되고 만 느낌이다. 그래서 자칫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들을 “남자를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축소 시킬 우려를 낳는다. 이 작품이 앞의 광고문 안에서처럼 많은 현대 여성들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요하나 자칫 페미니즘을 남자가 누리는 성적 권리를 여자도 누리겠다는 식의 차원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문경의 소설은 이 점에서 이경자의 소설과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조문경의 소설 「시를 짓듯 죄를 짓다」는 김인혜라는 주부가 일인칭 주인공이며 한 남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

### 지금 페미니즘 문학은

#### 가부장제의 본질을 깨뚫어보는

#### 여성들에 의해 우리사회 변혁의 모습을

#### 담아내야 할 단계에 서 있다.

#### 상업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 진정한 페미니즘 문학은 여성들의 삶에

#### 애정을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 자신의 삶과 대면하는 작가와 텍스트를

#### 적극적으로 읽어낼 준비가 된

#### 많은 독자들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역암당한 공통의 경험을 통해 시어머니와 공유감이 형성되며, 이렇듯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성으로서 동맹군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반역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침묵하기’ ‘소리지르기’ ‘가라, 불임의 언어여’로 설정하여 여성의 자아찾기를 언어가지기와 연관지어 풀어간다. 작가는 언어가 가진 정치성을 날카롭게 간파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여성해방적 메시지를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 연상기법을 도입한 자유로운 사건 전개, 간간히 내뱉은 욕설과 극히 일상적인 어투에 대한 자리매김 등에서 기존의 글쓰기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위의 이경자와 조문경의 작품비교를 통해 이제 페미니즘 문학이 왜 ‘남자 바꾸기’의 주제를 즐겨 다루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시각에 따라 그 메시지가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처럼 페미니즘에서는 개인의 체험과 사회구조의 연결이 중요하며 극히 개인적인 듯한 여성의 ‘외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좋은 작가는 중년 여성들이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는 열망의 뿌리를 제대로 잡아내고 새로운 관계의 나무를 심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남자와 여자들을 만나 새로운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야 사랑하는 것”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이다.

하여간 이경자의 언어공간은 자아찾기와 연결되며 보다는 독자들을 중년여성들의 사춘기적 몽상에 잡아매둠으로써 독자를 갑갑하게 한다. 반면 여성의 생각과 느낌을 일상언어로 그대로 드러내거나 논리적이고 단선적인 문제를 단연히 넘어서서 스스로를 열어가는 언어를 개발하려고 한 조문경의 시도는 앞으로 여성들이 보다 부담없이 자기표현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같으면서도 다른 박완서와 공지영의 세계

최근에 나온 박완서와 공지영의 소설은 페미니즘이 체제 문제라는 의식의 지평에 서 있다. 두 작가가 경험과 세대의 장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도 흥미를 끈다.

박완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등의 작품을 통해 일상을 파헤쳐 가족에 깃든 남성우월주의와 그런 억압구조가 냉은 비뚤어진 남녀관계와 상처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그려왔다. 최근에 발표한 작품 「꿈꾸는 인큐베이터」는 낙태를 가부장제 문화의 기본 전제와 연결시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킨 작품으로 폐미니즘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신호로 여겨진다.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생명존중 문화」라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뿌리깊은 남녀선호 사상 속에서 어떻게 가족 모두가 별 죄의식없이 「여아살해」의 공범자가 되고 있는지 드러내는데, 흥미롭게도 사회운동을 통해 평등의 의미를 깨우친 한 남자의 말을 통해 성차별 문화의 비인간성이 고발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박완서는 폐미니즘을 가정에서의 남녀의 개인적 대립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신세대 작가인 공지영은 박완서가 줄기차게 다루어온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다. 박완서의 시선이 상당히 냉정한 관찰자에 머물러 있다면 공지영의 최신작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는 관찰자의 시선을 벗어나 작품에 드러나는 사건의 중심부에 서서 말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또한 이 작품은 이제까지의 작품들이 이혼을 여성의 억압과 구속을 마감하는 하나의 해결로써 제시한 것과 달리 이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현실인식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여기서는 세 명의 여성의 삶의 태도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다 그런건데” 하는 세속적응형,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하는 원칙주의자형, “그래도 할 수 없지” 하는 현실순응형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을 통해 현재의 체제 속에서는 어떤 삶의 유형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체제를 바꾸어가지 않는 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이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성의 뛰렸한 주체를 가지고 해방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아울러 자기분열 속에서 괴로워하는 남성들의 상황을 드러내어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박완서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이제까지의 박완서의 작품들에서 대부분의 남성인물이 나약하거나 권위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진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번 작품의 경우에도 생활에서 살아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념의 대변자로서 존재하는 한편 공지영의 작품에서는 남성들의 입장과 고민이 그나마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결 살아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남녀 유별의 세대인 박완서와 달리 공지영은 이념적으로나마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의 폐미니즘 소설이 여성의 ‘자아찾기’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 그것도 가정주부의 막힌 삶에 대한 고발이 짙다. 주부만이 아니라 독신이라든가 미혼모 등 다양한 여성 주체들이 등장할 만도,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라 일터나 놀이공간 등의 영역이 등장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는 아직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굳건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하여간 조문경과 공지영의 작품은 여성의 삶 속에서 가부장제의 본질을 잘 읽어내 여성의 겪는 억압과 갈등을 여실히 그려내 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작품의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모욕에 함께 분노하고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에 절망하며 우울해 하기도 한다.

**“마치 역사를 쓰듯, 여성 자신에 대해 쓰자”**

폐미니즘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작가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을 하는 많은 독자들의 존재일 것이다. 두 작가의 주인공들처럼 여자는 결코 혼자인 것이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나 타자화되어 온 모습과 왜곡되어 왔던 체험을 살려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해 가려는 이때 서로를 격려해 갈 수 있는 자매애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굳건하게 훌로 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간다면 외롭지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좀 더 큰 힘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작가들의 ‘외로움’이 독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들이 여성들이 자매애를 발휘하면서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변혁의 움직임에 참여해 왔다면 그런 ‘외로움’은 달리 표현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지금은 여성이 자기의 체험에 귀기울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 때이나, 엘렌느 싹수의 말대로 “여성은 자기 자신을 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은 여성에 대해 써야 한다.”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것처럼 글쓰기로부터도 심하게 배제당해 온 역사 속에서 이제 여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역사를 쓰듯이, 자신을 텍스트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일기 시작한 그러한 움직임을 이 소설들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폐미니즘은 단순한 피해집단에 의한 저항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도전이자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대안적 전망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지금 폐미니즘 문학은 가부장제의 본질을 깨뚫는 역사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 변혁의 물결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담아내야 할 단계에 서 있다. 상업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폐미니즘 문학은 주변의 여성들의 삶에 애정을 기울이며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대면하는 작가와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읽어낼 준비가 된 많은 독자들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정치학’과 ‘시학’이 갈등하지 않는 형태의 폐미니즘 문학이 90년대 후반 우리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

지·성·인·을·위·한·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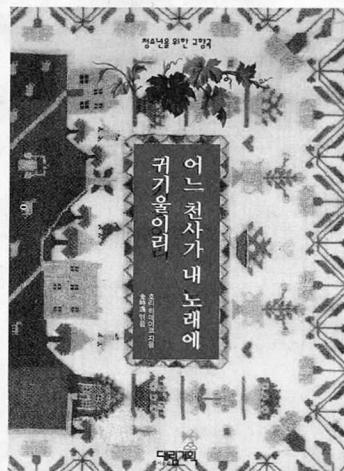
신간

#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리

호리 히데이코지음 · 김시일 역음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을지로 3가 286  
Tel : (02)268-4902  
FAX : (02)277-6946



잔인한 계절 4월에  
찬란한 5월의 봄을 위하여  
메마른 폐로 한껏 큰 숨을 들이쉬어 본다

우리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선택한 나의 길, 나의 삶을 예찬하고  
젊은 날의 사랑을 노래한다  
인생이라는 향기나는 우물에서  
빼 속까지 시원히 적셔줄 한 동이의 맑은 물

최선을 다하는 시간만을 위하여  
나의 심장은 뛰고 있고 나의 몸은 열려 있으니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